



☉ 침터의 장

- 마음의 촛불 _ 욕심을 마음에서 덜어 내라
- 고 사 성 어 _ 다기망양[多岐亡羊]
- 한 권 의 책 _ 적은 내 안에 있다.
- 영 화 이 야 기 _ 40살까지 못해본 남자
- 연 극 이 야 기 _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
- 바둑묘수 풀이 _ 귀의 특수성을 이용한 패
- 등 산 안 내 _ 마이산
- 골 프 _ 스윙의 기본



마음의 촛불

욕심을 마음에서 덜어내라

사람으로서 뛰어나게 위대한 일은 못 하더라도 세속의 인정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명사라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물욕을 마음에서 덜어낼 수 있다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위(魏)나라의 문제(文帝)는 노식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이부 상서(吏部尙書)라는 높은 자리에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라면 관창을 것 같아. 그저 집안이 좋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높은 지위에 앉는 것 따위는 참으로 곤란한 일이야. 땅에 그린 그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지.”

〈그림의 떡〉을 말한 대목이다. 볼 수는 있어도 먹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 실속 없고 오히려 보지 않으니만 못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역시 욕심을 경계한 말이다.

박종화(朴鍾和)의 소설 〈금삼(錦衫)의 피〉를 보면 사람의 욕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람의 새빨간 욕심이란 채우면 채울수록 밑바닥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 야수 같은 새빨간 본능은 사람의 마음 어느 한 귀퉁이에 몇 천년 몇 만년을 두고 길게 강하게 뿌리박혀 내려왔다. 그러나 사람은 도덕이란 옷과 예절이란 굴레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야수성을 뺄 수 있다가도 반성하는 마디에 이르러서는 소스라쳐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소스라쳐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그 차이점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욕심이란 너울 속에서 아무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드골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어딘지 모르게 무척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간이란 연약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 자체가 가냘프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가 보기에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대치를 충분히 이루



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서 남과 사귀기를 꺼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그 가냘픔이 인간의 본성 속에 살아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 연약함이, 그 가냘픔이 ‘소스라쳐 돌아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위대한 것이 모두 선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모든 선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할 수가 있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다.”

이규호의 「에세이 채근담」 중에서



고사성어

다기망양[多岐亡羊]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 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속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양자(楊子)의 이웃집에서 양 한 마리가 도망을 쳤다. 그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나서고 양자의 집에서도 아이까지 나서서 양을 찾으러 다녔다. 양자가 “단 한 마리의 양을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쫓아 가는고?” 하고 물으니 “도망간 쪽에는 갈림길이 많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다.

얼마 뒤에 그들이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갈림길을 가면 또 갈림길이 있어서 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어 버렸소.”

양자는 그 말을 듣고는 묵묵히 앉아 입을 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웃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이 기껏해야 양 한 마리를 잃은 일이지, 더구나 자기의 양도 아닌데 그렇게 침울해 있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어 도 대답이 없었다.

뒷날, 한 제자가 그 일에 대해서 양자와 문답한 결과, 목표가 단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갈림길에서 또 갈림길로 헤매어 들어가서 찾다가는 결국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학문의 길도 그와 같은 것이어서 하나로 돌아가는 중요한 목표를 잃게 되는

방법은 무의미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집에 하인이 둘 있었는데, 제각기 양을 지키고 있다가 둘 다 양을 잃어버렸다.

주인이 화를 내며 “대체 너희들은 양이 도망갈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한 하인은 “책을 읽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다른 하인은 “주사위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하고 대답을 했다.

두 하인이 하고 있던 일은 각각 다르다. 그러나 양을 지키는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결과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가장 중요한 일은 참된 목표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에는 지식의 집적과 이론의 분석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질없이 작은 일을 꼬치꼬치 캐고 살피는 일에 빠져서 근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것을 풍자한 이야기이다.





한권의 책

적은 내 안에 있다

공자, 나폴레옹, 칭기즈칸, 카프카, 루스벨트...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사람? 그 평범했을지도 모를 이름에 확고히 방점을 찍은 사람? 틀린 대답은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공통점은 바로 이들이 〈내 안의 적〉과 싸워 이긴 승자들이라는 것이다.

칭기즈칸은 일찍이 고백하기를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조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고 했다.

프랑스의 영원한 황제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은 뼈아픈 자기반성을 남겼다. “나의 실패와 몰락에 대해서 책망할 사람은 나 자신 이외는 없다.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내가 내 자신의 최대 적이며 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의 원인 이었던 것이다.”

여기, 이 쟁쟁한 현인들 앞에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27세 청년이 있다. 그는 1년에 무려 1000권이나 되는 책을 읽고서 〈내 안의 적〉을 파헤치고, 싸워 이기는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한 젊은이다.

잘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온라인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느닷없이 〈내 안의 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도서관에 틀어박힌 이 사내는 그야말로 두문불출, 1000권의 책을 독파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 수많은 책 속에서 현인들이 먼저 성찰하고 탐구했던 〈내면의 적〉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물리치는 법을 깨달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내 안의 적〉 탐구서라 할 이 책에서는 물질적인 성공이든 정신적인 성공이든 이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바로 〈자기 안의 적〉이라고 말하고, 이 적을 효과적

으로 다스리는 법을 경험에 입각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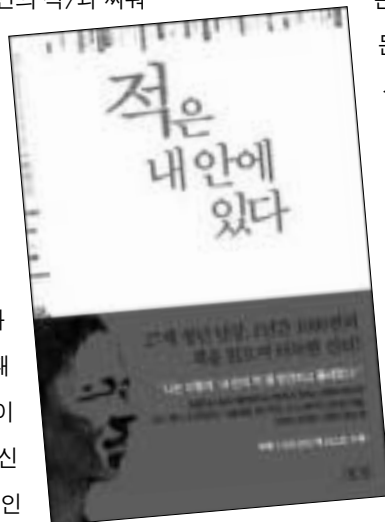
근대 현자들뿐만 아니라 현대 지성인들, 예컨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선물〉 등으로 유명한 탁월한 이야기꾼 스펜서 존슨, 영화 〈러브레터〉 감독 이wai 순지, 세기의 문제작 〈실낙원〉의 작가 와타나베 준이치,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명사가 디팩 초프라, 리더십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 〈갈매기의 꿈〉으로 잘 알려진 리처드 바크 등 수십 명의 저서와 말들을 인용해 〈내면의 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격한 괴물로 여기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 받지 못한 어린애, 나를 무릎 꿇게 하는 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무뢰한으로 규정하여 설명한 점이 무척 이채롭다.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의 성공을 막고, 좌절하게 하고, 두 손을 들게 만드는 이 무뢰배를 완전히 제거하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필자가 택한 것은, 달래주고 맞장구 쳐주다가 중요한 순간에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방법들이다.

이와 같이 〈내 안의 적〉을 의인화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아닌, 친밀감을 갖도록 한 것이 필자의 글쓰기방식이다.

한편 이 책 부록에는 필자가 1년 동안 읽은 1000권의 책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실음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책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서 천민자본주의에 몸을 맡겨 표류하는 현대인들에게 〈내 안의 적〉을 다스림으로써 주체적인 성공을 이뤄 내자는, 한 열혈청년의 연대서이다.



저자 : 남강 출판사 : 평단문화사



영화 이야기

40살까지 못해본 남자

40세의 노총각 앤디는 지금까지 한번도 섹스를 못해본 그야말로 숫총각 이다.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하는 그의 유일한 취미는 액션 영화 캐릭터들을 수집하면서 열광하는 면을 가진 아직까지 소년취향의 남자이다.

애인도 친구도 없는 앤디를 이상한 눈으로 보던 동료들은 어느 날 우연히 앤디가 숫총각임을 알고 경계심을 푼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앤디의 딱지떼기 작전에 돌입한다.

동료들의 지원 하에 데이트 작전에 들어갔지만 소심한 그로서는 쉽게 여자와 익숙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던 중, 매장 건너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혼녀 트리쉬가 가전제품을 사러 온다. 트리쉬에게 호감을 품은 앤디는 그녀의 가게를 찾아가 데이트 신청을 하고, 두 사람은 급격히 친밀해지기 시작하는데…….

작품의 탄생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그릇된 동료들의 충고를 따라 결국 그것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잇을 수 없는 여정을 떠나는 착한 중년 숫총각에 관한 코믹한 아이디어는 코믹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카렐로부터 나왔다.

카렐이 몇 년 전 즉흥 코미디 연기가 주특기인 극단 <세컨드 시티 Second City>와 함께 공연을 하면서 구상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몇 년에 걸쳐 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큰 비밀을 가진 40살 남자에 관한 시나리오로 발전시켜 나갔다.

<데일리 쇼>에 출연해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그의 모습이나 <브루스 올마이티>와 <앵커맨>에서 보여준 최고의 연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세컨드 시티>의 동료들은 그가 독특한 중년 남성의 성장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티브 카렐은 수상 경력이 있는 코미디 작가이자 텔레비전 작가/제작자인 주드 아파토우를 <앵커맨>을 촬영하면서 만났다. 그들이 코미디에 관해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스티브 카렐은 40이 되도록 숫총각인, 인생의 전성기를 지난 외로운 남자에 관한 그의 아이디어를 아파토우에게 말했다. 당시 자

신이 감독을 맡을 작품을 찾고 있었던 아파토우는 카렐의 이야기에 매료당했으며 흥분했다.

주드 아파토우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항상 다음 영화의 주인공을 맡을 코믹한 배우들을 주시해서 살펴보는데, <앵커맨>에서 스티브 카렐의 연기를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아주 웃긴 얘기들을 여러 가지 해줬는데, 그 중에서 이 이야기가 가장 웃겼습니다.”

스티브 카렐은 이렇게 말한다.

“주드 아파토우는 꾀내기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이야기가 성공을 하고, 어떤 이야기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 아이디어에 즉시 관심을 보이고, 더욱이 저와 협력해서 이 영화의 감독까지 맡겠다는 것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주드 아파토우와 스티브 카렐은 여러 달 동안 힘들지 않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들은 크게 웃을 수 있는 웃긴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중간중간에 음탕한 요소가 들어있는 탄탄한 이야기를 금방 만들어냈다.

작품에 관하여

주드 아파투우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바보 네이빈 The Jerk>, <동물 농장Animal House> 등과 같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R등급 영화팬입니다. 그 영화들은 그렇게 외설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리낌없는 섹스 코미디를 보여줍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제한이 없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가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라기보다는 실제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더욱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했고,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시나리오를 쓰기에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비록 <40살까지 못해본 남자>라는 영화 제목을 보면 섹스가 주가 되는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골적인 성적인 면과 함께 엉뚱하지만 매력적인 주인공들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고 노력했다.

감독 주드 아파투우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40살까지 못해본 남자>는 섹스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삶에서 사랑을 찾고, 그 러는 동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식 덕분에 아파투우와 카렐은 종종 나오는 독특한 장면들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티브 카렐의 소년 같은 험담한 인물과 다양한 표정 연기, 천부적인 몸놀림으로 관객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범하면서도 엉뚱한 유머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다양한 상황에 코믹한 요소를 적재요소에 풀어넣는 카렐과 아파투우의 재능도 한몫 하였다.

앤디는 건실하고 평범한 남자이지만 지금까지 섹스 할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쳐서 결국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한 인물이다. 카렐은 이렇게 말한다.

“<40살까지 못해본 남자>는 앤디가 총각딱지를 뗀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는 소심한 면이 있는 매우 건실한 남자입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감독은 앤디의 상황에 좀 더 확실하게 접근하기 위해 여러 웹 사이트를 통해 나이가 들었지만 섹스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들 대부분이 정말로 친절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모두 첫 경험을 하지 못한 흥미로우면서 그럴 듯한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파투우는 이렇게 언급한다.

“그것은 매우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로 인해 앤디가 괴상한 인물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가 아주 멋진 로맨틱 코미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찾고 쟁취하려는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대본을 읽고 리허설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영화 제작자들과 배우들, 코미디에 재능이 있는 그들의 많은 친구들이 시나리오에 참여해 <조사단원>이라는 명칭 아래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치욕적인 경험 등 그들 자신의 경험들을 털어 놓았다.

세 자녀를 둔 아름다운 여인인 트리쉬 역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적 있는 캐서린 키너가 연기했다. 트리쉬는 앤디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서로 섹스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동의를 한 후 친구가 되기로 한다.

블랙 코미디에서 빛을 발하는 강하고 극적인 연기로 잘 알려



진 캐서린 키너는 이 작품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열광했다. 영화 제작자들이 앤디의 순수한 매력에 빠져드는 여자 역할에 처음부터 캐서린 키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그녀가 밝고 음란하기까지 한 코미디에 출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었다.

아파투우와 카렐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키너의 에이전트가 40살의 슛총각에 대한 시나리오에 관해 전화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을 때 이미 그녀는 아파투우와 카렐 작품의 팬이었다.

캐서린 키너는 이렇게 기억한다.

“제 에이전트가 전화를 해서 시나리오에 대해 말해주면서 제목은 좀 그렇지만 매우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재능 있는 배우인 스티브 카렐이 출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에 대해 물으니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Freak and Geeks>의 제작총지휘자라고 말해주

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나리오를 읽었고, 그들이 저와 함께 작업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파투우는 키너와 카렐이 커플로 출연한다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캐서린과 스티브는 굉장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봐도 그들이 서로에게 매료되었으며, 그 둘 사이를 친근함이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코미디에서는 로맨틱한 요소만 약간 나올 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캐서린은 이 영화에 그런 현실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화의 질을 확실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2005년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을 하였다. 첫날부터 아파투우는 배우들이 쉽고 편안하게 연기하도록 하게 하여 배우들은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즉흥연기를 하면서 배우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게 하였다.



연극공연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

딜러(장사꾼, 파는 자)는 불현듯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사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집요하게 묻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자신이 제공할 수 있다며 거래를 제안한다.

손님은 자신은 우연히 이곳까지 오게 된 것뿐이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스스로의 욕망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딜러가 먼저 가진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딜러는 자신은 타인의 욕망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럼으로써 그 심연을 메워주는 사람임을 주장하며 손님과의 진정한 관계 맺기를 갈망한다.

손님은, 자신은 어떠한 기억도, 뿌리도, 따라서 욕망도 없음을 고백하며, 당신(딜러) 또한 결국 아무것도 제시할 게 없는 것 아니냐며 물아세운다. 자신의 호의와 좌절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딜러와 각자의 영역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는 손님은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는다.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1987년)〉는 콜테스의 작품들 중 텍스트로서도, 또 공연으로서도 가장 성공적인 연극이라고 평가받는 작가의 대표작이다.

무대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배우들의 동작에 대한 아무런 시도 없는 이 연극은, 오직 두 인물간의 치열하고 현란한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때 이 대결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파는 자〉와 〈사는 자〉 사이의 사회-경제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콜테스는 텍스트의 서두에 이러한 관계를 〈딜(deal)〉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작가에 의하면, 〈딜〉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교환과는 달리 어둠의 시간과 공간에서 〈딜러〉와 〈손님〉 사이의 암묵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지되거나 통제된 상거래를 의미한다.

콜테스가 이렇듯 〈딜〉이라는 행위가 기본적인 상황을 이루는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작가가 뉴욕에서 체험한 일화로부터 기인한다.

“어느 날 밤 창고 근처를 배회하고 있던 콜테스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있다. 코카인, 헤로인, 엑스터시...’ 라고 말을 걸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아.”

도시의 뒷골목에서 흔히 부딪치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콜테스는 나와 타인간의 관계를 이루는 본질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철학적이고 집요한 성찰을 담은 연극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를 구상했던 것이다.

작품은 콜테스가 겪은 실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딜러가 불현듯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딜러는 손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집요하게 묻고, 그 욕망이 어떠한 것이든 자신이 제공할 수 있다며 거래를 제안한다-손님은, 자신은 우연히 이곳까지 오게 된 것뿐이며, 아무 것도 원하

는 게 없고, 스스로의 욕망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딜러가 먼저 가진 것들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딜러는, 자신의 역할은 타인의 욕망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럼으로써 그 심연을 메워주는 것임을 주장하며 손님 또한 부여받은 역할을 해줄 것을, 그리하여 진정한 관계를 맺을 것을 갈망한다-손님은, 자신은 어떠한 기억도, 뿌리도, 따라서 욕망도 없음을 거듭 밝히며,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만 거듭하는 딜러의 위선과 무능력을 비난한다-자신의 호의와 기다림이 좌절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하는 딜러와 각자의 영역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는 손님은 끝내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렇듯 이 연극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양 팀이 한 번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며 하듯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과 필사적으로 그 공격에 방어하려는 시도 사이를 오간다.

이때 그들의 말은 때로는 창이, 때로는 방패가 되면서 다른 모든 행위를 대신하는 유일한 무기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딜러와 손님의 대화가 진정한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미로 속에서 힘겹게 맴도는 가장 결정적

인 이유는 〈딜〉을 가능하게 할 욕망의 대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즉 손님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는 자/요구하는 자/욕망하는 자〉의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딜러와의 관계가 애초부터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손님은 무엇을 찾아 딜러에게 왔는가? 딜러가 제공해줄 수 있는 욕망의 대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두 인물 모두 이에 대한 답을 모르거나, 미루거나 혹은 부정하는 탓에, 〈파는 자〉와 〈사는 자〉의 대립은 대화를 거듭할수록 각자의 영역만을 확인하고 고수할 뿐이다.

따라서 지하의 공간-집승의 시간-곡선의 우회-어둠의 영역에



서 타인을 욕망하는 딜러와, 도시의 공간-인간의 시간-직선의 이동-빛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욕망조차 부정하고 제로의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손님은, 서로를 굴복시키려는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화해될 수 없는 나와 너의 절망적인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딜러는 밤과 거리에 속한 주변인이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열망하고 있다. 반면 손님은, 오히려 딜러보다도 더 철저한 이방인이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독한 자기 세계의 소유자로 드러난다.

딜러가 자신의 뿌리(어머니) 기억을 긍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까지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손님은 자신을 규정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부정의 인간이며, 부재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난 그냥 제로이고 싶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시간과 이 장소의 끝없는 고독 속에서, 우린 각자 혼자입니다.”

손님이 딜러의 공손함을 비웃으며 차라리 화를 내라고 종용하는 것은 아무 이유도, 의미도 없는 이 만남을 한시라도 빨리 파국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서로의 말과 의도와 욕망을 흡수해서 무화 시켜버리는 이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 손님과 딜러는 결국 마지막 대결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무기를?”

말을 통한 설득이 실패한 이상, 남은 무기는 육체적인 싸움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일 뿐일 것이다. 그리고 극적 갈등이 비로소 행위로 이어지려는 순간, 연극은 막을 내린다.

콜테스가 보여주자 했던 것은 나와 타인 사이에 놓인 심연과 그것이 극복되지 못하는 과정이지,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는 연극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 이 세상의 전쟁과 폭력과 범죄와 죽음을 통해, 너무도 익숙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는 또한 콜테스의 글쓰기가 지닌 매력과 힘의 정수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다양한 비유와 은유, 그리고 가정법으로 이루어진 그의 대화들은, 때론 거칠고 때론 무거우리만치 진지하지만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말들 속에서 그 의미

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치열한 말들의 대결로만 이루어진 연극에서, 어떻게 연극성을 찾아낼 것인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마침내 인물들이 싸움에 이르는 순간에 막을 내리는 이 연극은,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나와 너의 대결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서로의 욕망이 끝내 화해될 수 없는 것은, 작품의 마지막에서 각자 고백하듯이 욕망 자체가 부재하거나, 나의 욕망에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그것을 원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는 자끄 라캉의 말은 나와 너의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원초적인 오해를, 욕망의 목화밭 안에서의 절대 고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욕망함으로써 절망하지만, 욕망함으로써만이 살아갈 수 있기에, 콜테스가 던진 “내가 은밀하게 지니고 있는 욕망의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화두 앞에서, 그 헤어날 수 없는 미로 속에서, 많은 연극인들과 관객들 또한 고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화려한 영상 이미지들과 가짜 욕망들이 흥수를 이루는 시대에, 콜테스는 현대연극이 고수해야 할 진지함과 진정성을 보여준다. 그의 연극은 7·80년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젊은 세대의 고통스러운 고백이고 절규에 다름 아니다. 21세기에도 그의 외침은 여전히, 어쩌면 그때보다 더욱, 동시대인들을 향하고 있다.

∴ 공연안내

△공연기간 : 2005년 10월 5일 ~ 11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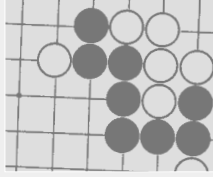
△관람등급 : 15세 이상

△공연장 : 산울림 소극장

△좌석유형 : 비지정석

△공연시간: 평일 19시 30분 / 토요일 15시, 18시 30분 / 일요일 15시

△문의 : 02-334-5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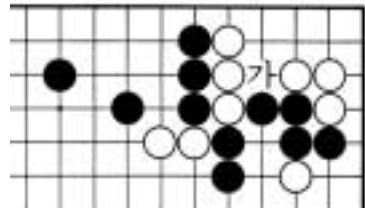
바둑모수 풀이

〈집 모양을 줄인다〉는 상용의 수단

바둑은 전략이다. 바둑은 두뇌싸움이다. 두뇌를 쓰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뜻심 하나로 전장에 뛰어드는 병사는 하루살이 꼴을 면치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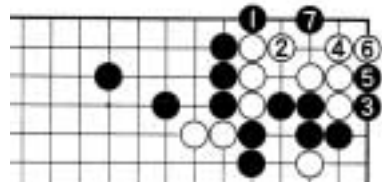
[문제]

흑선. 실전에 흔히 나오는 모양이다. 백가로 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 상대의 집 모양을 줄이는 사용 수단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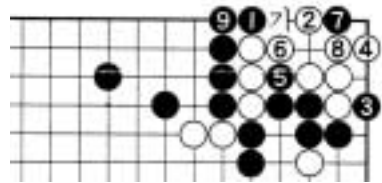
[정답 1도]

우선 흑1로 젓힌다. 백2로 받으면 흑3 쪽으로 젓혀, 이하 흑7까지 치중하여 백을 잡을 수 있다. 백이 가로 흑 두 점을 따면 흑은 3에 먹여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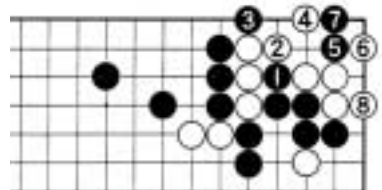
[정답 2도]

백2로 받는 것도 있다. 여기에도 흑단3으로 젓힌 다음 흑5 이하 9까지 백수를 잡을 수 있다. 백은 자충인 관계로 가에 이를 수가 없다. 흑7은 소위 〈2의 1〉의 급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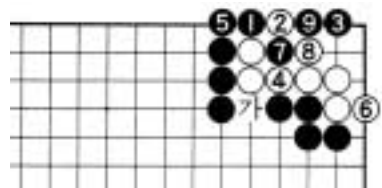
[실패도]

흑1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속수이다. 흑5에 치중할 때 백6으로 살아가 버리게 된다. 먼저 젓혀놓지 않은 대가로 백8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참고도]

가의 공배가 있을 때에는 두는 방법이 달라진다. 흑7로 먹여 치고 9로 찢러 패가 된다.





등산 안내 마이산

마이산은 1979년 10월 16일 전라북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진안읍 5개리, 마령면 4개리에 걸쳐 있으며 많은 문화재와 볼거리를 가지고 있다.

마이산은 산 자체가 국가지정 명승 제 12호로 지정되었고, 수성암으로 이루어진 673m의 암마이봉과 667m의 솟마이봉의 두 봉우리로 형성되어 있다.

신라시대에는 서다산, 고려시대에는 용출산이라 했고, 조선시대부터 말귀를 닦았다 하여 마이산이라 불리어 왔다.

마이산은 중생대 후기 약 1억 년 전까지 담수호였으며, 대홍수 시 모래 자갈 등이 밀려 호수를 메우고 물의 압력 의하여 이루어진 수성암이며, 약 6 ~ 7천만년 전 지각 변동에 의하여 융기되어 마이산을 이루었으며, 지금도 민물고기 화석이 간혹 발견되고 있으며 자연이 많은 최대의 걸작품이다.

또한, 봄에는 뚝대봉, 여름에는 용각봉, 가을에는 마이봉, 겨울에는 문필봉이라고 불리우는 마이산은 아득한 옛날 남녀 두 신선이 이곳에서 자식을 낳고 살았다 하는데, 등천할 때에 이르러 남신이 이르기를 “우리가 등천하는 모습을 아무도 봐서는 안되니 밤에 떠납시다” 하였으나 여신은 밤에 떠나는 것은 무서우니 새벽에 떠나자고 했다 한다.

그러나, 새벽에 떠날 즈음 마침 새벽 일찍 물 길러 나왔던 동네 아낙이 등천하는 두 신선을 보고 놀라 소리치는 것을 듣고 등천이 틀린 것을 안 남신이 화가 나서 “여편네 말을 듣다 이 꼴이 되었구나” 하고 여신으로부터 두 자식을 빼앗고서 발로 차 버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위산>을 이루고 주저앉았다 한다.

이것은 구전되어 내려온 전설이기는 하지만 마이산을 진안 쪽 북에서 보면 아닌게 아니라 동편 아빠봉에 새끼봉이 둘 붙어 있고, 서편의 엄마봉은 죄스러워서인지 수치심에서인지 반대편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라 새삼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국내에 있는 산중에 가장 특징 있는 산을 꼽으라면 마이산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다른 산들은 사실 조금씩 비슷비슷하다. 설악산이나 북한-도봉산, 청량산, 주왕산 정도가 독특함에서 유별난 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점을 감안해서 마이산은 이들 산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특색을 가졌다. 운장산에서 덕유산 쪽을 보면 진안고원 바닥에 칼날처럼 예리하게 솟아 있으나 산이라기보다는 작은 봉우리일 뿐인 마이산은 사실 산행을 할 정도의 산도 아니다.

운장산이 1,200m를 넘고 덕유산이 1,500m를 넘는 것을 생각



하면 이 두 산들의 맥을 멀찍이 두고 솟아 있는 마이산이 어느 정도의 산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산으로 가려면 우선 진안으로 가야한다. 진안에서는 마이산으로 왕복하는 버스가 있다. 가깝기 때문이다. 주차장 옆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 나 있다.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숫마이봉과 암마이봉 사이로 계단길이나 있는데 여름엔 수림이 울창하여 그늘을 제공해주고 가을엔 암-수마이산을 배경으로 멋진 단풍을 제공해준다.

암마이산은 진안 쪽에서 보면 왼쪽에, 숫마이산은 오른쪽에 솟아 있다. 두 봉우리사이의 안부엔 쉼터가 마련되어 의자에 앉아서 마이산의 경관을 구경할 수 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한가한 구경을 할 겨를은 없다.

이 쉼터에서 오른쪽으로 난 철계단을 오르면서 30여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산행이 시작된다.

쉼터에서는 왼쪽 봉우리인 암마이봉엔 올라갈 수가 없다. 암마이봉으로 난 길로 따라 조금 올라가면 바위 사이로 난 조그마한 굴로 연결되어 있다.

숫마이봉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을 지나고 나면 돌과 모래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가장 독특한 산인 마이정상으로 난 급경사 암사면으로 올라가게 된다. 단단한 암면도 있지만 시멘트로 배합한 듯한 돌과 모래로 구성된 이상한 바위로 된 산의 속살이 드러나 있다. 이른바 역암이다.

풍상과 사람들의 발길에 부대끼면서 역암으로부터 분해된 자갈이 간혹 급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지는 일도 있다.

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돌을 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이산에 올라서면 남덕유에서 시작된 거대한 덕유산 줄기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마이산에 부속된 아기자기한 골짜기와 암릉이 보인다.

슬랩성 단애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조망은 아찔하고 특히 탐이 있는 벼랑 아래쪽은 근접하기가 위험할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 단애이다.

정상부에는 조그마한 송림이 조성되어 있다. 역암이 부서져 생긴 자갈이며 돌이 많다.

마이산을 내려오는 길은 따로 없다. 올랐던 길로 다시 내려와야한다. 숫마이봉은 말할 것도 없고 암마이봉도 한곳만 빼놓고는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가 심한 암사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안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은수사와 탐사가 있다. 역암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돌이 지천으로 생긴 터라 돌탑을 쌓기에 안성맞춤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절을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특색있는 절로 만든 돌탑조성에 들인 공은 대단한 것이다.

탐사 옆으로 치솟은 암마이봉의 절벽은 혀를 내두를 만큼 높고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역암이라는 바위의 성분 때문에 중간에 폭 패어 들어간 곳이 여기저기 보인다. 돌덩어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떨어진 자리다.

탐사에 언제나 사람이 많다. 마이산은 규모가 작아 조금만 가물어도 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감안해두는 것이 좋다.

등산코스

△남부주차장→고금당→전망대(비룡대)→성황당→봉두봉→탐사→은수사→천황문→북부주차장<4.7km(3시간 30분~4시간 소요)>

△탐사→남부주차장 : 5.0km

△성황당→북부주차장 : 3.1km

※등산로에서 봉두봉을 거치지 아니하고 탐사로 가기 위하여는 탐영제 이정표를 따라 내려와서 탐사로 가면 됨.

교통안내

△전주-진안버스(6시 30분부터 10분 간격 운행, 소요시간 1시간)

△진안-북부주차장(30분 간격 운행, 진안-남부주차장(하루 4회 운행 4시 35분에 막차))

△온천 : 남부주차장에서 전주 부귀면 방향으로 모래재터널의 전주 쪽에 화심온천이 있다. 이 온천의 성분은 중탄산나트륨이 함유된 알칼리성 온천으로 알려져 있어 관절염과 신경통에 좋다.



골프 스윙의 기본 ②

최근들어 골프 애호가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골프가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골프기술의 향상과 골프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스윙의 기본부터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롱 아이언, 미들 아이언, 숏 아이언, 어프로치 샷, 벙커 샷, 퍼팅, 트러블로부터의 탈출법, 나이스 샷, 등의 순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스퀘어로 되돌리기 쉬운 스트롱 그립

스퀘어 그립의 경우 왼손 손목의 방향과 페이스의 면이 똑같다. 따라서 왼손 손목을 몸의 전방으로 향하게 하고 다운스윙하면 페이스도 또한 몸의 전방을 향한 상태로 쳐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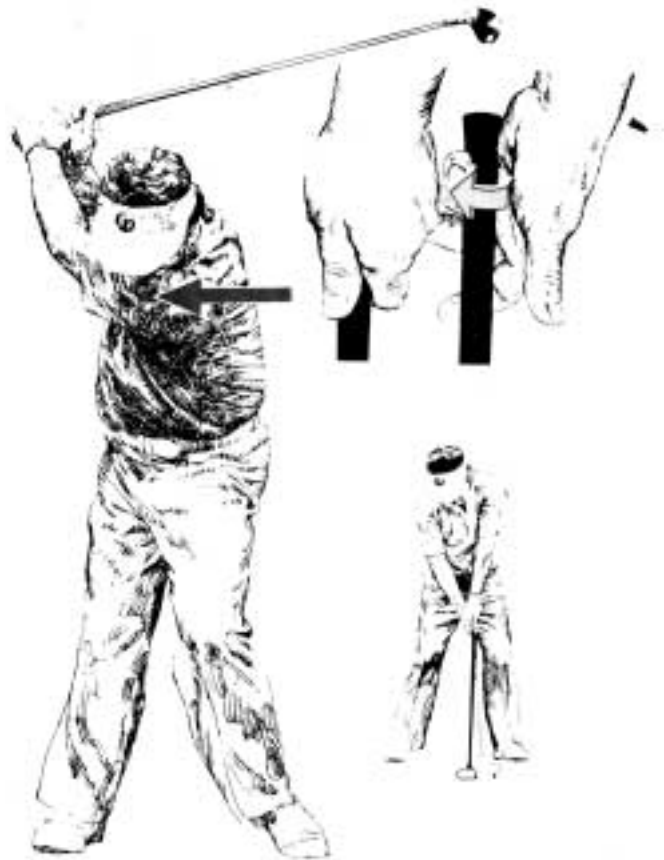
스퀘어 그립의 경우 벌어져서 내려온 페이스를 임팩트의 순간까지는 스퀘어로 되돌려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지간히 날카롭게 헤드를 쳐내지 않으면 안된다.

몸의 회전을 멈추고 친다면 용이하게 헤드를 쳐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몸을 회전시키면서 헤드를 쳐내는 데는 헤드의 휘두름에 상당한 스피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왼손을 겹쳐서 잡으면, 왼손 손등을 몸의 전방으로 향하고 클럽을 내리쳐도 페이스는 그다지 벌어지지 않는다.

스퀘어 그립의 경우 임팩트의 순간 왼손 손등이 목표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페이스가 스퀘어로 되돌아가지 않지만, 스트롱의 경우에는 왼손은 볼에 자세를 취했을 때의 상태로 되돌리기만 하면

왼손을 겹쳐서 잡으면 오른쪽 어깨가 약간 내려가서 머리가 볼의 뒤쪽에 위치하여 백스윙에서 왼쪽 어깨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쉽다.



된다. 몸의 전방으로 향하고 있던 왼손 손등을 약간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이다.

몸을 최대한으로 써서 스윙을 하더라도, 스트롱 그립의 경우는 페이스를 스퀘어로 되돌리기가 쉬운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왼손을 어느 정도 겹쳐서 잡을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깊숙이 겹치고 헤드의 휘두름에 스피드가 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스퀘어 그립으로 하는 방법이 권장할 만하다.

손가락으로 바고 왼쪽 손등은 약간 오른쪽을 향하게

스트롱 그립은 왼손 인지의 제2관절과 새끼손가락 밑동의 약간 손바닥 쪽 위치에 샤프트를 대고 잡는다.

왼손을 약간 겹치고 잡는 데에는 손가락을 주체로 해서 그립해야만 한다. 손바닥으로 잡게 되면 반대로 왼손이 벌어져서 위크 그립이 되고 만다. 왼손은 새끼손가락 밑동 부분에서 샤프트가 손바닥에 걸리게 되지만, 오른손은 손가락만으로 가볍게 잡는다.

왼손을 겹치면 머리는 볼의 뒤쪽

왼손을 겹쳐서 잡으면 머리를 볼의 뒤쪽에 자리잡기가 쉬워진다. 왼손을 겹치면 왼쪽 어깨가 높아지고 오른쪽 어깨를 낮게 자세를 취할 수가 있으므로, 상체는 자연히 볼 뒤에 위치하게 된다.

핸드 퍼어스트라도 페이스가 벌어지지 않는다

왼손을 겹쳐서 그립을 만들면 손은 클럽헤드보다 약간 앞에 나

온다. 이른바 핸드 퍼어스트이다. 스퀘어 그립에서 핸드 퍼어스트로 자세를 취하면 페이스가 벌어져버리지만, 스트롱 그립에서는 페이스가 벌어지는 일은 없다.



스퀘어 그립의 경우 왼쪽 사이드로 리드해서 힘껏 쳐내어도 페이스는 벌어지지 않는다.